

치 사

2012년 3월, 생명의 기운과 함께 시작한 ‘생명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천일정진’이 1000일의 기억과 함께 회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발원으로 동참해온 조계사, 봉은사, 불광사 등 불자님과 서울지역단 포교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종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명평화 천일정진은 우리의 실천으로 대승불교의 진면목을 돌아보고, 한국 불교의 참신함으로 시대와 함께하면서 한국불교의 등불이 되겠다는 모두의 다짐이었습니다. 못 생명들의 안락과 평화를 발원하고 정진하는, 우리가 걸어 가야 하는 길이자 뜻 깊은 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미흡하고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마음을 깨우는 성과와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더불어 동참대중들이 보여준 작지만 소중한 마음은 감동과 성찰의 씨앗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회향의 의미 속에서 그동안 경청해온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점검하고, 우리가 걷는 길에서 든든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평화 정진을 회향하는 것은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을 많은 대중과 함께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나아가 사회로 확산해 나가는 것은 종단과 불자의 염원이며 우리가 밝힌 등불에 빛을 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종단은 ‘붓다로살자’ 운동을 전개하고 오랜 공업을 녹이기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성심성의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와 종단의 현실과 엄중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는데 종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붓다로살자’ 운동은 중앙과 상층 중심이었던 결사를 지역과 사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 대중 모두가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준비기간 동안 동참 사부대중이 1천 여명에 이르렀으니 본격적인 추진에 큰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중공사 역시 사부대중 지도자들이 열린 광장에서 불교 중흥을 위하여 우리 문제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성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1000일 동안 정진의 등불을 밝혀왔던 정진단도 ‘생명평화 법당’으로 개원하여, 여러 불교시민단체가 우리사회의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진을 이어가기로 했으니 뜻 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종무기관은 물론 많은 사부대중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불자들의 지극한 정성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노심초사 정진해 오신 도법스님과 동참 대중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자발적인 마음이 모여 한국불교의 새로움에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 되어, 우리의 이루어낸 성취가 모두의 행복으로 고르게 나누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12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